

## ‘촛불 민심’에 맞서는 대통령 퇴진 거부·검찰조사엔 ‘꼼수’

검찰 최후통첩도 거부... 최순실 기소 이후 다음 주 조사 받을 듯  
3野 “피의자 신분 소환하라”... 분노한 민심 주말 전국 촛불집회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촉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결국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5·6면>  
검찰이 순조로운 사건 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씨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로 기소 예정 시점인 20일 이전인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해 이번 주 조사는 무산됐다.  
더욱이 최순실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아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했던 박 대통령은 본인이 중요 혐의자이면서도 ‘부산 LCT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는가하면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국정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은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 등 들끓는 여론과 야3당의 강력한 퇴진 운동에도 ‘퇴진·하야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긋고, 사실상 검찰 조사까지 연기함에 따라 이번 주말 전국에서 동시에 열릴 ‘촛불 집회’에서 성난 민심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할 계획이며, 다음주께나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15~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 “마지노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면서 연일 박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연기한 것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의 혐의와 진술이 최씨의 공소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꼼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조사 없이도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다음주 이뤄질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진실’을 말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만약 이미 구속된 최씨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주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박 대통령은 조사연기 꼼수 중단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최장 120일 수사

민주당·국민의당 후보 추천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날 함께 처리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국정조사계획서 ‘기타 조항’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속 중인 최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신팔도유람  
대전 원도심 골목 ▶ 18면  
나지안 4년에 40억  
KIA와 계약 ▶ 20면



“수고했다 내 딸” 201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 문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한 수험생이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불수능’ 국·영·수 어려워 수험생들 ‘당혹’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정부가 말하는 ‘쉬운 수능’ 기조는 아니었다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험장에서는 국어를 비롯,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보다 체감 난도(難度)가 높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전년도보다 1등급 기준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관련기사 7면>

이날 오후 시험장을 나선 수험생들은 ‘불수능’, ‘멘붕’이라는 반응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수험생들은 첫 교시부터 한 페이지 전체를 채우고도 추가로 다음 장 절반 가량을 지문으로 채운 문항과 과학 지문 등이 담긴 국어 영역 문제지를 접하며 진땀을 뺐다.

수학 영역도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으로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형의 경우 지난해 1등급 기준(96점)보다 등급컷이 90점 인위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영어도 ‘헬(Hell·지옥) 영어’ 등의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수능 수준으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배신감을 키웠다. 영어는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돼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장광재 승격과 전문직학부장은 “이번 시험이 영역별 고난도 문제 등으로 변별력을 확보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수험생들의 경우 가독이나 긴장한 상태에서 첫 과목부터 부담을 느끼면서 체감 난도는 한층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대통령 + 여야 대표 회담 거국내각 총리 선임하자”

박지원 정국 해법 인터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빚어진 정국 혼란에 대해 야권이 촛불 민심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에 나서면서도 정치력을 발휘, 여야 합의 총리를 선임해 거국중립내각 출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투 트랙’

의 해법을 제시했다. <인터뷰 전문 5면>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광주일보와 가진 ‘위기의 정국, 해법을 듣는다’ 연세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총리는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이뤄진다면 국정 공백을 막고 대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영수회담이 이뤄져

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로드맵으로 대통령의 탈당→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담→거국중립내각 총리 선임→최순실 부역 인맥 청산과 내각 조각→검찰 수사·국정조사·특검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제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가 민심에 역행, 퇴진을 거부하고 끝까지 정권을 놓지 않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권의 탄탄한 공조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고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야권이 정치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  
-YEAR  
Ginseng Research

#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이모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